

“고향 명예 위해”...광주·전남 스포츠 스타들 ‘메달 사냥’



양궁 안산



광주시청 육상팀. 왼쪽부터 강다슬, 김국영, 정혜림.



복싱 임애지



당구 김행직



근대5종 전웅태



전국체전 울산서 오늘 개막...13일까지 열전 광주-안산·전웅태·김국영 등 다관왕 도전 전남-최미선·김행직·임애지 등 금메달 기대

국제 무대에서 남보를 전했던 광주·전남 스포츠 스타들이 고향의 명예를 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103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 개막해 13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는 전통적인 효자 종목 육상·양궁 등 총 48개 종목에 1549명(선수 1058, 임원 491)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남 선수단은 47개 종목에 걸쳐 1675명(선수 10137, 임원 538)으로 구성됐다.

광주 대표로는 올림픽사상 최초 메달리스트 근대 5종 전웅태(광주시청), 도쿄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양궁스타 안산(광주여대), 100m 한국기록 보유자인 육상 김국영(광주시청),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100m허를 정혜림(광주시청) 등이 출전한다.

안산과 전웅태, 김국영은 다관왕에 도전한다. 도쿄올림픽 동메달, 2022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남자 계주·혼성 계주) 등 한국 근대5종의 새 역사를 쓴 전웅태는 개인, 단체, 계주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산이 포진한 양궁은 종합우승이 우력하다.

육상 400m 기대주 모일환(광주시청)과 올해 도로 개인독주 랭킹 1위인 자전기 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는 대회 3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고교 1학년으로 대회 2관왕에 오르며 기량을 입증한 핀수영의 '다크호스' 양현지(광주체육)는 2관왕 2연패라는 기록에 도전한다.

전남 대표로는 양궁 최미선·이은경(순천시청), 근대5종 서창환(전남도청), 자전기 김민오·신동인(강진군청),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여자 해머던지기 1인자 박서진(목포시청), 육상(세단뛰기) 김장우(장흥군청), 당구 김행직(전남당구연맹), 볼링 최복음(광양시청), 김현미(곡성군청) 등 스타 선수들이 메달 사냥의 선봉에 선다.

역도 '차세대 스타' 조민재(전남체고 3년)는 지난해에 이어 3관왕 2연패에 도전하며 최근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금빛질주를 선보인 자전기 김재연(전남체고 3년)도 3관왕을 노린다. 툴리 이유진(여수충무고 3년)이 다관왕도 주목된다.

이밖에 대한민국 스타들도 체전에 나선다. 우상혁(26·서천군청), 황선우(19·강원도청), 여서정(20·수원시청) 도쿄올림픽과 주요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2022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우승(2m34), 실외 세계선수권대회 2위(2m35),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우승(2m33) 등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높이뛰기 월드랭킹 1위' 우상혁이다. 우상혁은 충남고 재학 중이던 2013년과 2014년, 실업 입단 후인 2015, 2016, 2018년 등 총 5차례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한국 선수로는 11년 만에 퉁코스(50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한 황선우는 2년 연속 전국체전 최우수선수(MVP)에 도전한다.

한국 근대5종의 새 역사를 쓴 전웅태는 개인, 단체, 계주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산이 포진한 양궁은 종합우승이 우력하다.

육상 400m 기대주 모일환(광주시청)과 올해 도로 개인독주 랭킹 1위인 자전기 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는 대회 3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고교 1학년으로 대회 2관왕에 오르며 기량을 입증한 핀수영의 '다크호스' 양현지(광주체육)는 2관왕 2연패라는 기록에 도전한다.

전남 대표로는 양궁 최미선·이은경(순천시청), 근대5종 서창환(전남도청), 자전기 김민오·신동인(강진군청), 복싱 임애지(화순군청), 여자 해머던지기 1인자 박서진(목포시청), 육상(세단뛰기) 김장우(장흥군청), 당구 김행직(전남당구연맹), 볼링 최복음(광양시청), 김현미(곡성군청) 등 스타 선수들이 메달 사냥의 선봉에 선다.

역도 '차세대 스타' 조민재(전남체고 3년)는 지난해에 이어 3관왕 2연패에 도전하며 최근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금빛질주를 선보인 자전기 김재연(전남체고 3년)도 3관왕을 노린다. 툴리 이유진(여수충무고 3년)이 다관왕도 주목된다.

이밖에 대한민국 스타들도 체전에 나선다. 우상혁(26·서천군청), 황선우(19·강원도청), 여서정(20·수원시청) 도쿄올림픽과 주요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2022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우승(2m34), 실외 세계선수권대회 2위(2m35),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우승(2m33) 등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높이뛰기 월드랭킹 1위' 우상혁이다. 우상혁은 충남고 재학 중이던 2013년과 2014년, 실업 입단 후인 2015, 2016, 2018년 등 총 5차례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한국 선수로는 11년 만에 퉁코스(50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한 황선우는 2년 연속 전국체전 최우수선수(MVP)에 도전한다.



역도 조민재

한다. 황선우는 계영 800m(9일), 자유형 200m(10일), 계영 400m(11일), 자유형 100m(12일), 혼계영 400m(13일) 등 닷새 연속 물살을 가른다.

한국 여자 체조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도쿄올림픽 도마 동메달)한 여서정은 8일 단체, 개인 종합, 9일 도마 결선에 출전해 다관왕을 노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권순우 지긋지긋한 '2회전 징크스' 털어냈다

일본오픈 테니스 78위 맥도널드 꺾고 8강 진출

권순우(120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1년 넘게 이어진 '2회전 징크스'를 털어내고 3회전 진출에 성공했다. 권순우는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라쿠텐 일본오픈(총상금 195만3천 85 달러) 단식 16강전(2회전)에서 매켄지 맥도널드(78위·미국)를 2시간 4분만에 2-1(6-3 6-7(4-7) 6-2)로 제압했다.

이로써 권순우는 올 시즌 처음으로 투어 대회 3회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아스타나오픈에서 우승한 뒤 지긋지긋하게 이어졌던 2회전 징크스를 털어냈다.

권순우는 지난해 10월 파리바오픈부터 이달 초 끝난 코리아오픈까지 26개 ATP 투어 대회에서 연속으로 단식 본선 2회전 통과에 실패했다. 올해 한 차례 참가한 쉐린저 대회에서 1회전 탈락한 기록까지 더하면 27개 ATP 대회에서 연속으로 예선 또는 본선 1, 2회전에서 졌다.

권순우는 자우메 무나르(58위)·페드로 마르티네스(68위 이상 스페인) 경기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두 선수 모두 권순우와 투어 대회에서 대결한 적이 없다.

권순우는 맥도널드에게서 서브 파워에서만 다소 밀렸을뿐 샷 정확도, 집중력 등에서 앞선 모습을 보이며 여유롭게 1세트를 가져갔다. 2세트들어 게임스코어 4-4로 팽팽한 상황에서 맞은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브레이크당할 위기에 몰렸으나, 발리샷 2개를 연달아 적중시키더니 결국 게임포인트를 따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맥도널드의 강한 서브에 예리함이 더해졌고, 2세트는 타이브레이크 끝에 맥도널드의 차지가 됐다.

권순우는 3세트 맥도널드의 첫 서브게임을 끈질기게 몰고 늘어져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게임스코어 5-2로 승기를 잡았다. 포핸드 위너로 매치포인트를 따낸 권순우는 테니스공을 관중석으로 쳐 보내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에서 지난 5일 열린 일본오픈 테니스 16강전에서 권순우가 매켄지 맥도널드를 상대로 강력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바둑 11일 개막 농심신라면배 3연패 도전

신진서·변상일 등 최정예 출격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바둑 삼국지' 농심신라면배가 다음 주 막을 올리고 열전에 들어간다. 제24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은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 기원에서 온라인을 타고 본선 1차전을 치른다.

'바둑 황제' 조훈현 9단이 단장을 맡은 한국 대표팀은 랭킹 1~3위인 신진서(22)·변상일(25)·박정환(29) 9단과 공동 4위인 강동윤(33)·신민준(23) 9단 등 최정예 멤버들이 출격한다.

한국은 '부동의 랭킹 1위' 신진서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는 초년 시절 농심배에서 2연패를 당했지만 이후 파죽의 9연승을 달리며 승률 81.8%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농심배 3연패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중국은 선발전을 통과한 케제(柯潔·25)·구쑤하오(辜梓豪·24)·롄샤오(連笑·28)·뤄자시(? 羅嘉豪·31) 9단과 와일드카드를 받은 판팅위(潘廷威·26) 9단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지난 대회에서 한국에 밀려 준우승에 그친 일본은 기성(棋聖) 이치리키 료(一力遼·25) 9단을 비롯해 명인(名人)·본인방(本因坊)인 이야마 유타(井上裕太·33) 9단, 십단(十段) 쉬자위안(許家元·25) 9단, 용성(龍星) 시바노 도라마루(芝野虎丸·23) 9단 등 타이틀 보유자 4명과 관서기원의 위정치(余正麒·27) 8단으로 팀을 꾸렸다. /연합뉴스

2022-2023시즌 여자프로농구 30일 개막

2022-2023시즌 여자프로농구가 오는 30일 개막한다. 6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2022-2023시즌 여자프로농구는 30일 인천 천안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천 신한은행과 '디펜딩 챔피언' 청주 KB의 대결로 문을 연다. 두 팀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 팀이 팀당 30경기씩, 6라운드를 치른다. 정규리그는 2023년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3월 11일부터는 1~4위, 2~3위 팀 간 플레이오프가

열린다. 챔피언결정전은 내년 3월 19일부터 5전 3승제로 펼쳐진다. 올스타전은 내년 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팀별 홈 개막전을 살펴보면, 부천 하나원큐는 오는 31일 부천 체육관에서 신임 김도완 감독이 코치로 몸담았던 용인 삼성생명과의 격돌한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이룬 KB는 다음 달 4일 챔피언결정전 상대였던 아산 우리은행을 홈인 청주체육관으로 불러들인다. 새 시즌 경기 시작 시간은 평일 오후 7시, 주말 오후 6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정직한 후보2 |
| 2관 | 정직한 후보2, 컴백홀 |
| 3관 | 정직한 후보2, 스마일 |
| 4관 | 인생은 아름다워 |
| 5관 |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임학교 |
| 6관 | 공조2: 인터내셔널 |
| 9관 | 정직한 후보2, 컴백홀 |
| 7관 씨네캐슬 | 공조2: 인터내셔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핀 버전' |
|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임학교, 스마일, 고고다이노 극장판 열음공룡의 비밀,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미술관의 비밀 |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 2022. 10. 1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 062-613-8245